

광양 4분기 기업경기 전망 어둡다

BSI 82.7... 전 분기보단 상승
영업이익 목표 미달업체 40.4%
원가 상승·자재 수급불안 원인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이백구)가 지역기업 100여 곳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2022년 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기업경기전망지수(BSI)가 82.7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3/4분기(48.5) 보다는 상승(34.2↑)했으나 기저효과로 4분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재제 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100 미만이면 반대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함을 의미한다.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1.5%가 21.2%, 2.0%는 38.5%, 2.5%는 30.8%, 3.0%는 9.6%가 응답했다. 정부 전망치 2.6%와 비슷한 예상치다.

한편 OECD 전망치는 2.7%, IMF 전망치는 2.3%이다.

내년도 경기전망치 예상은 '악화될 것'으로 65.5%, '호전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34.5%로 나타났으며 '악화' 주된 요인으로 물량감소와 단가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

(47.4%)가 절반 가까이 차지한 반면 '호전' 주된 요인으로 수주 증가(60.0%)로 답해 업종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올해 초 계획한 목표치에 대한 실적(영업이익)은 57.7%가 목표치 달성·근접으로 답했으며 목표치 미달은 40.4%, 목표치 초과는 1.9%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는 '원가 상승 및 원자재 수급불안' (30.5%)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금리 인상 기조' (21.2%), '환율 등 대외 경제지표 변동성 심화' (16.9%), '인플레이션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 (8.5%), '미·중 갈등 등 공급망 리스크' (6.8%), '기업 부담법안 등 정책 리스크' (6.8%)와 '대졸기인 만료 등 자금 조달 어려움' (각각 5.1%), '주요국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부진' (4.2%), '인력 부족 등 기타' (1.7%) 순으로 응답했다.

자금 조달 수단을 묻는 질문에는 '은행·증권사 차입' (48.4%)과 '내부 유보자금' (29.5%) 비중이 높았으며 '정부지원금' (13.7%), '주식채권 발행' (6.3%), '기타' (2.2%)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비중이 늘어난 자금 조달 수단은 '은행·증권사 차입' (61.0%)과 '내부 유보자금' (22.0%)이 주를 이뤘으며 '정부지원금' (11.9%), '주식·채권 발행' (1.7%), 기타 (3.4%) 순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가장 주요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는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61.3%)이 차지했으며

'설비투자 및 사업 확장' (26.9%), '채무 상환과 자산 투자' (각각 5.8%) 순으로 답했다.

현재의 자금 사정에 대한 평가는 '보통' (44.2%)과 '어려움' (36.5%)이 병존한 가운데 양호는 13.5%, '매우 어려움'은 3.8%, '매우 양호'는 1.9%로 조사됐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이유로는 '매출 부진에 따른 현금흐름 제한'이 40.6%, 이어 '생산비용 상승으로 유보자금 부족' (34.4%), '대출금 상환 및 이자 부담 과다' (15.6%), '보유자산 대비 대출한도 초과' (6.3%), '대출금 연체 및 신용등급 하락' (3.1%) 순이었다.

광양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금리 인하와 확장 재정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등 긴축 기조로 돌아서고 있다"며 "미 연준 파월 의장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미팅에서 "중앙은행이 미국 경제에 약간의 고통을 초래할 방식으로 금리를 지속 인상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강달러(달러 조강세)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이며, 무역수지 적자가 14년 만에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성장의 뒷받침이 됐던 수출 둔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민간소비가 하락하면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세심한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최근 ㈜보성교통과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성군 제공

보성, '초·중·고 100원 버스' 내달 시행

학생 교통비 부담 완화

보성군은 최근 ㈜보성교통과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100원 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는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100원 버스 적용대상은 초·중·고등학생 과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며 농어촌버스가 운행하는 전 구간에 적용된다.

청소년 100원 버스는 농어촌버스 탑승 시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현금 결제 시에는 기존 단일요금(800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요금 인하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군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김철우 군수는 "2017년부터 시행한 천 원 버스에 이어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시행으로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을 펼쳐 교통복지 실현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만정원박람회 정원작품 경연대회 공모

11월 1일부터 접수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천재영)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열릴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 정원작품 경연대회에서 수준 높은 정원 조성 기법을 선보일 국내외 우수한 작가를 공모한다.

이번 경연대회의 주제는 박람회 주제인 '정원에 삽니다', '나만의 정원'이며, 오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다.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실내외 정원 총 50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실내정원은 ▲시진(봄 여름 20작품)은 카페·사무공간 등에 어울리는 휴카페 거든 ▲시진2(여름 가을 20작품)은 가정에서 표현 가능하며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가정용 팜가든을 주제로 공모한다. 실외정원은 '나만의 정원'에 맞

게 작가별 자유주제로 10개 작품을 조성한다. 참가자에게는 조성지원비, 관리비용, 무료 출입증과 정원조성에 필요한 기반, 물, 전기 등을 제공한다. 국외 참가자에게는 추가로 통관 검역 서류비 등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선정된 작품은 2023년 3월 31일까지 박람회장에 실물로 조성한 후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우수작품에 대해 시상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실내정원 10개 작품(시즌별 5개 작품)에 대해 최우수상 등 1,500만 원, 실외정원은 최우수상 등 5개 작품에 대해 4,600만 원이다.

정원작품 공모전은 정원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과 한국가드너협동조합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구례, 민선8기 공약 본격 추진

구례군이 민선8기 출범 이후 약 2개월 동안 군수 공약사항 검토를 완료하고 5대 분야 55개 공약사항을 최근 확정했다.

지난 8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들어 주민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구례군은 2023년 예산확보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착수한다. 공약사항 5대 분야는 ▲활력 넘치는 지역생태계 구축(10) ▲머물고 싶은 지역 관광 매력도 향상(18) ▲친환경 정주·안전 인프라 확충(10) ▲청년이 돌아오는 미래 농업환경 조성(7) ▲모두가 누리는 행복복지 실현(10)으로 구성돼 있다.

군은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자연드림 치유힐링 클러스터 조성 및 인구활력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리산과 섬진강 자원을 활용한 관광 르네상스 사업 추진 등의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례=손석봉 기자



김성 장흥군수(왼쪽)와 왕윤채 장흥군의회 의장(오른쪽)은 국제슬로시티연맹 피에르 조르조 올리베티 사무총장을 직접 만나 국제 전문가 실사를 정식 요청했다. /장흥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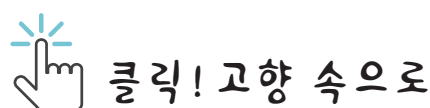
장흥, 국제슬로시티 재도약 쟁결음

튀르키예 방문 현장실사 협의

장흥군과 장흥군의회가 국제슬로시티 가입 최종 단계인 현장실사 협의를 위해 튀르키예를 방문했다.

장흥군 방문단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국제슬로시티연맹(회장 마우로 밀리오리니)에서 주최하는 총회 및 이사회, 워크숍에 참석하고 10월 현장실사 일정을 조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13일 장흥군을 찾은 한 국제슬로시티본부(이사장 손대현)의 공식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김성 장흥군수와 왕윤채 장흥군의회 의장은 국제슬로시티연맹 마우로 밀리오리니 회장과 피에르 조르조 올리베티 사무총장을 직접 만나 국제 전문가 실사를 정식 요청했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은 오는 10월 말 장흥군을 방문해 국제실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NH농협은행 순천시지부, 햅쌀 전달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NH농협은행 순천시지부가 햅쌀을 전달했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최근 순천시지부에서 NH농협은행 순천시지부장과 1,000만 원 상당의 햅쌀 2,500개를 전달하는 기부식을 열었다.

기부받은 햅쌀은 2023순천만국

제정원박람회 사전 홍보 조성 및 입장권 판매 홍보판촉물로 활용될 계획이다.

조상명 NH농협은행 순천시지부장은 "이번 햅쌀 기부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동시에 쌀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중마동 자치위, 시각장애인센터 성금

광양시중마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최근 광양시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자립지원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중마동 주민자치위원회는 2014년부터 광양시 시각장애인들과 말벗이 돼주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자원봉사 및 물품 기탁을 해 왔으나, 2017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자립지원금을 기탁하고 있다. 올해 기탁식에는 광양시

의원장과 중마동장이 자리를 같이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들이 자리를 함께해 앞으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정식 중마동장은 "늘 장애인을 배려하는 행정을 펼치고,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편견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불미나리, 유기인진썩 90상자 기부

화순군은 최근 화순불미나리(대표 이재학)가 마을 경로당에 전달해 달라며 유기인진썩 90상자를 백아면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기부된 유기인진썩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28곳 경로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재학 화순불미나리 대표는 "코로나19로 다른 해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어르신들이 항상 건강하기를 기원한다"며 "환절기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부해준 후원 업체에 고마움을 전한다"며 "주민들에게 잘 전달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이종백 기자